

격 려 사

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대불련은 한국 현대사와 한국불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행단체입니다. 1963년 대불련의 창립은 불교가 산중을 벗어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일조하였고, 한국불교가 청년 불자에게 다가가는데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.

창립 이래 50년을 이어오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(上求菩提 下化衆生)의 이념으로 보살도의 삶을 걸어가면서 대학생 분야의 포교와 연구는 물론이고 불교발전에도 큰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.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세기에 해당하는 오랜 동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오늘의 위상을 지켜온 힘은,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대학생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.

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진리를 찾기보다는 현실적 편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. 그 속에서 신행활동의 의미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것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50년의 원력을 돌아보고, 불제자로 사는 올바른 의미와 원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

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,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.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전법의 길은 앞으로도 대학생 불자들이 꾸준히 해나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.

대학생 불자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량입니다. 한국불교의 희망이고 미래임에 틀림없습니다. 청년들의 힘과 열정은 앞으로 이 나라를 불국정토로 일구는 귀중한 땀방울이 되어 줄 것입니다.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왕성한 활동으로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.

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50년이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. 또한 50년의 역사도 현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멈춰버린 역사에 불과합니다. 반세기 동안 불퇴전의 마음으로 대학생불교연합회가 서원을 세우

고 실천해 왔듯이 향후 50년에도 깨어있는 대학생 불자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.

더불어 50년 동안 한결같이 대학생 포교의 원력으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이끌어온 역대 모든 대학생 불자들, 50주년 기념식을 원만하게 준비해 온 50주년 기념사업회와 그간 대학생 포교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.

불기2557(2013)년 8월 17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,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 자승